

Venture 즐겨찾기

벤처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가교 코스닥시장본부

KOSDAQ

지난 1월 27일 코스닥시장이 출범 8년 만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됐다.

새로운 조직의 정비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시장본부의 새로운 사업 방침이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코스닥시장의 문을 개방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어서 벤처 재도약과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얻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http://www.kosdaq.com>)

코스닥시장본부의 홈페이지에서는 코스닥 현황, 신규상장법인 안내, 상장심사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상장의 장점과 요건 및 절차,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절차, 벤처기업의 주요 혜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어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증

권시장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주는 곳이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각 나라마다 증권시장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한편, 자국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들은 별다른 장애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좋은 투자대상을 찾아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바야흐로 증권거래소도 IT산업의 한 분야처럼 진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IT강국의 강점 살리는 코스닥시장

지난 1월 27일 코스닥시장과 한국증권거래소(KSE) 및 선물시장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한 것은 거래소의 이용자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증권시장의 통합과정에서 코스닥시장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상실될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IT강국의 강점을 살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기능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과거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자격심사에서부터 코스닥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벤처활성화사업추진

최근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다행히 코스닥시장 역시 지난 4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경제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러한 기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 코스닥시장이 어려울 때 한국증권거래소로 시장을 이전한 기업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시장의 선택은 기업과 그 기업의 주주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구 한국증권거래소)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용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적자인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유가증권시장의 성장형 중소기업 요건을 폐지토록 할 것이다.

둘째, 시장을 클린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상장폐지가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저항이 컸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운영자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막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더러운 때를 말끔히 씻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부실기업을 조기에 찾아내어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셋째, 과도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다. 지난 코스닥시장의 활황기를 돌이켜보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장의 참가자들이 스스로 시장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규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직접적인 규제 없이도 스스로 주주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장을 통한 규제가 기업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결국 주주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앞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코스닥시장을 가꾸는 일은 정부의 일도 본부의 일만도 아니다. 즉 코스닥시장에서 꿈을 실현시키고 또 꿈을 키우게 만드는 것은 시장 참가자 모두의 몫인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할 때 코스닥시장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의 분발이 더욱 절실하다.



상장심사팀 박웅갑 팀장

저희 팀에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코스닥 등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등록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설립 후 경과연수 및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본금, 자기자본이익률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코스닥 등록이 매우 유리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인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벤처기업만의 혜택입니다. 한편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공시팀에서 주관하는 '코스닥 등록기업 합동 I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해 국내외 IR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02-2001-5883~6)